

<기획안: 외부공유용>

**현장의 목소리를 듣다,**

**중소·중견기업이 원하는 탄소중립 지원 방안**

**토론회**

2024.07.01.

## 1. 취지

- 2024년 3분기부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(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, CBAM)에 따라, EU 수출기업은 탄소배출량 정보를 EU 수입기업에 제출해야 함. CBAM 대응이 필요한 기업 뿐 아니라 국내기업에 대한 해외 기업·투자운용사의 지속가능경영 및 탈탄소경영 요구가 꾸준히 확산됨에 따라 글로벌 대기업들은 scope 3 배출량 내에 있는 공급망 기업들의 감축을 요구해오고 있음. 국내 산업계는 공급망이 방대하고 중소·중견기업이 국내 전체 기업의 99.9%를 이루고 있음. 그러나 국내 중소·중견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및 탈탄소 경영 실행력은 대기업에 비해 미흡한 상황임. 특히 탄소중립을 파악할 인력과 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지적된 바 있으나, 이를 지원하는 우리 정부의 지원 역시 역부족한 상황임.
- 한편, 2021년 기준 산업부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중소기업(300인 미만, 추정) 배출량은 30.4%에 달한 바 있음. 이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·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.

- 이에 따라 본 토론회는 중소·중견기업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을 소개하고, 이를 토대로 국내 중소·중견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.

## 2. 개요

- 일시 : 2024. 7월 24일 오후 2시 - 5시
- 장소 :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
- 주최: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, 녹색전환연구소, KoSIF

\*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구성

대표의원	김성환(더불어민주당)
정회원	※ 더불어민주당 : 김성환, 김정호, 위성곤, 김원이, 민형배, 이소영, 이용선, 박정현, 박지혜 ※ 진보당 : 윤종오(재선) ※ 조국혁신당 : 서왕진(초선)

### ● 프로그램(안)

구분	내용	
개회	● 사회 : 이진우 보좌관	공동
개회 및 축사 (10')		
발제(30')	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대응방향: 중소기업을	

	<p>중심으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김은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위원</li> </ul>
	<p>현장의 목소리: 중소/중견기업의 탈탄소 방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/변호사</li> </ul>
토론(60'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좌장 :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조찬홍 주식회사 신도 연구소장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현민 고려특수선재 팀장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우리 한겨레신문 산업부 기자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 부장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진원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박승록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혁신과 과장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박근형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 수석전문관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인상 환경부 기후경제과 사무관</li> </ul>
종합토론(20')	(종합 토론)